

## 기리카네(截金)

기리카네는 아주 얇은 금박이나 은박 등을 잘라낸 것을 나무 등으로 만든 바탕에 붙여 섬세하고 정밀한 문양을 그리는 장식기법입니다. 기리카네는 원래 불상의 옷이나 갑옷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스카 시대(552~645)에 아시아 대륙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8세기부터 14세기 초에 걸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에도 시대(1603~1867)에 들어서면서 기리카네는 작업 공정이 빠르고 바르기 쉬운 금니(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으로 대체되어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기술이 교토의 히가시혼간지 절과 니시혼간지 절에서만 간신히 유지될 정도로 쇠퇴했지만, 기리카네를 적용하는 대상이 종교적 관련에서 차 도구나 미술품 등과 같은 공예품으로 확대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금박은 숨만 닿아도 찢어질 정도로 섬세하기 때문에 여러 겹을 겹쳐 보강합니다. 금박을 다룰 때는 대나무 가위를 사용합니다. 대나무는 금박에 달라붙지 않으며, 금박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박을 여러 장 겹친 후, 이들이 서로 밀착되도록 충분히 달궈진 재 위에 놓습니다. 겹친 금박이 하나로 합쳐져 충분한 두께가 되면 이것을 사슴가죽으로 덮인 재단대로 옮기고 대나무 칼로 금박을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자릅니다. 사슴가죽을 사용하는 이유는 얇은 금박이 고정되며, 떼어낼 때도 달라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라낸 금박을 작품에 붙이는 작업에는 해조류를 원료로 하는 ‘청각채’와 동물의 가죽을 원료로 하는 ‘아교’를 혼합한 특수한 풀을 사용합니다. 장인은 양손에 각각 한 자루씩 붓을 들고, 아주 가늘게 자른 금박을 붙여 나갑니다. 한 손에는 끝을 물로 적신 도리후데로, 선 형태의 금박 끝을 붓끝으로 감아 올려 재단대에서 들어 올린 뒤 공중에 매달아 둡니다. 다른 한 손은 풀을 묻힌 기리카네 붓을 들고 작업합니다. 이것으로 문양의 선을 그리고, 도리후데에 매달려 있는 금박을 따라가며 붙여 나갑니다.

현재까지 기리카네 기술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이시카와현 출신으로 1985년에 보유자로 인정받은 니시데 다이조(1913~1995)입니다. 니시데는 불교 미술의 복원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리카네를 접하게 되었고, 열정적으로 연구를 거듭하며 독학으로 그 기법을 습득했습니다. 니시데는 기리카네를 자신의 목공예 작품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동물을 형상화한 합자(뚜껑이 있는 그릇)를 화려한 금선과 꽃잎 무늬 기리카네로 장식한 작품 등 니시데의 기리카네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기리카네는 1981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